

2020년 성모승천 대축일 주교 메시지

교토교구의 신자여러분, 코로나 감염자의 증가가 멈추지 않고있습니다. 6월에 재개했던 미사 역시 중지되었습니다. 성모승천 대축일을 맞이하여 코로나 재난에 대해 교황 프란치스코가 만드신 성모님에게로의 기도를 바탕으로, 우리들의 기도를 바칩시다.

이 기도는 중앙협의회발행 「팬더믹(대유행)후의 선택」에 수록되어있습니다.
(밑선의 부분이 교황님의 기도입니다.)

■성모님의 보호

천주의 성모님, 저희의 어머니, 전세계가 고통과 불안에 시달리는 이 비참한 상황에서 당신의 보호에 저희를 맡기나이다. 신형코로나바이러스의 전 세계적 대유행 아래 놓여있는 저희를 자애로이 굽어보소서,

치료중인 사람들, 후유증에 시달리는 사람들, 그들의 가족들과 감염에 무서워하고 있는 사람들등 불안에 떨고 있는 저희를 지켜주시고, 감염확대를 재빨리 멈추어주소서.

■죽은이들에 대한 추모

동정 마리아님, 사랑하는 이의 죽음에 때로는 가슴이 미어지는 매장 방식에 상심하며 울고있는 사람들을 위로하여 주소서.

저희들과 함께, 전세계의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으로 인해 사망한 모든이들의 영원한 안식을 자비로우신 하느님 아버지께 기도해주소서.

■만나지 못하는 사람들끼리의 위로

복되신 동정마리아님, 앓고 있는 이들을 염려하면서도 확산 방지를 위해 가까이 있어줄 수 없는 사람들에게 힘을 북돋워주소서.

많은 사람들이 병자나 고령자의 문병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번 여름휴가 때에 가족들과 떨어져 사는 사람들이 고향의 가족들과 만나는 것이 가능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서로의 건강을 배려하면서도 마음이 통하고 마음의 유대가 더욱 깊어지기를.

■일자리, 생활의 불안

천주의 성모님, 불확실한 미래를 염려하고, 경제와 일자리에 미칠 영향에 걱정하는 이들에게 희망을 불어넣어 주소서.

오랜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확대로 인해 모든 직종에 종사하는 사람들에게 생활을 위협하는 심각한 상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또한, 7 월에는 큐슈와 동북지역에 호우재해로 피해를 입은 사람들이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당신의 지원을 통해 이 난관을 헤쳐 나갈 수 있도록, 또한 사회의 약자들에 대한 관심과 배려가 유지되기를 바랍니다.

■감사

지극히 거룩하신 마리아님, 이 위협의 최전선에서 다른이들을 구하고자 목숨의 위험도 마다하지 않는 의사, 간호사, 의료종사자, 자원봉사자들을 보호주소서. 그들의 용기있는 노고에 함께하시고 그들에게 힘과 선의와 건강을 주소서.

또한, 우리교회에서 감염방지를 위해 봉사하고 있는 신자, 수도자, 사제들에게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안전과 건강의 은총을 받고, 신앙공동체의 일치를 지켜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근심하는 이들의 위안이신 마리아님, 곤경에 빠진 모든 당신 자녀들을 보듬어 주소서, 하느님의 전능하신 손길로 저희가 이 비참한 감염증의 대유행에서 구원해주시기를 간주주소서, 아멘.

2020年8月15日 성모승천대축일

✠ 바오로 오오츠카 요시나오주교